

새로 탄생한 '남원의 소리' 들어보기

▶ 내일 오후 2시부터
'남원의 소리' 최종 포럼

국내의 유명 아티스트 참여
2주간 지역에 머무르며
시민들과 함께 작품 완성



남원시 문화도시사업추진위원회 주관으로 지난 5일부터 2주간 남원에 거주하면서 창작한 '남원의 소리' 발표회와 최종 포럼이 17일 오후 2시부터 합파우 소리체험관에서 개최된다. 영국 출신의 사이먼 웨담이 지역 초등학생과 함께 소리를 듣고 있는 모습.

남원시 문화도시사업추진위원회 주관으로 지난 12월 5일부터 2주간 남원에 거주하면서 창작한 '남원의 소리' 발표회와 최종 포럼이 17일 오후 2시부터 합파우 소리체험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프로젝트는 남원이 가지고 있는 유·무형의 자산을 기반으로 전통예술, 자연(지리산), 삶에 스며있는 소리를 현대 예술적 관점으로 풀어내고 소리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확장 가능성을 탐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국내의 유명 사운드 아티스트 6명이 참여한 '남원 사운드 아티스트 레지던시'는 2주간 남원에 머무르며 시민들과 함께 소리를 채집하고 각자의 기획에 따라 새로운 작품을 완성했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 총괄 디렉터를 맡고 있는 박지선 프로듀서는 프로듀서 그룹 도트의 공동설립자이자 아시아 프로듀서 플랫폼(APP)의 기획위원으로 활동 중이

며, 서울국제공연예술제와 춘천연극제 등 공연예술축제를 기획했고, 국내외적으로 예술가와 비예술가간의 협업을 이끌어 작품을 창작하고 있다.

우선 외국 참여 작가로 영국의 필드 레코딩을 중심으로 하는 사이먼 웨담은 남원지역 초등학생과 함께 쉽게 지나쳤던 일상의 소리를 깨닫고 상상력을 펼쳐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고, 오스트리아에서 활동 중인 마티아스 에리안은 시민들과 함께 사운드 녹음 및 편집에 관한 워크숍을 개최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사운드 퍼포먼스 공연 전문가 이혜령은 남원의 근원을 비주얼 이미지와 사운드로 파악하는 작업을 진행했고, 특히 10여명의 시민과 함께 시간을 통해 공간과 사운드

인지를 각자의 방식으로 체험하는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사운드 오브 소울(sound of soul)' 총괄 기획자 전광표는 남원 소리 채집단 워크숍을 통해 사람과 남원 환경 사이에 소리의 관계성을 인식하고 시각 중심의 사회에서 벗어나 환경에서 소외된 청각을 회복시키는 작업을 했다.

매체와 사운드를 사용한 퍼포먼스 극을 만드는 김보람 작가는 일상의 시공간을 매개로 하는 가상의 공간을 만들고 두 개의 공간이 중첩되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서울과 런던을 기반으로 사회의 이야기를 퍼포먼스를 통해 표현하는 이송연 작가는 남원에서 오래 살아오신 분들의 이야기 채집, 신화나 설화, 동네에서 내려오는 이야기 등을 찾고 이야기를 바탕으로 주민들과 간단한 드로잉으로 이미지를 그려보는 워크숍을 진행하고 작가의 상상력을 덧붙여 새로운 이야기를 창작하였다.

한편, 지난 12월 8일 1차 포럼에서는 영국의 현대미술상 '2015 터너상' 수상단체인 공공디자인 그룹 어셈블(Assemble)이 참여하여 '예술작가와 지역민들 간의 협업을 통한 지역 재생'이라는 주제로 도시 재생 사례를 공유하여 큰 관심을 얻었다.

2주간의 소리 프로젝트는 오는 17일 오후 3시부터 남원 합파우 소리체험관에서 새롭게 탄생한 '남원의 소리' 발표회와 포럼을 통해 마무리된다. /남원=유영철 기자



문학 이재숙씨 국악 김 연씨 무용 변은정씨



미술 홍성기씨 사진 허 광씨 연극 김희숙씨

전주시 예술상 수상자 6명 선정

전주시는 제27회 전주시 예술상 수상자 6명을 선정했다. 전주시는 지난 10월 24일부터 11월 18일까지 수상 후보자를 공모하였으며, 12월 14일, 예술상 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6개 부문에서 6명의 수상자를 선정했다.

영광의 제27회 예술상 선정자는 ▲문학 부문 이재숙(68·시인/전북문화관 강사) ▲국악 부문 김 연(52·국악인/전북도립국악원 교수) ▲무용 부문 변은정(38·한국무용가/남마무용단 지도위원) ▲미술 부문 홍성기(58·화가/시대미술문화연구원 대표) ▲사진 부문 허 광(69·사진작가/회사원) ▲연극 부문 김희숙(59·연극인/황토퍼포먼스컴퍼니 대표)씨 등 6명이다.

전주시 예술상은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 의욕을 고취시키고 창작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문화예술도시 전주의 위상을 높이고자 문학, 음악, 국악, 무용, 미술, 사진, 연극, 영화, 연예, 건축 등 10개 부문에서 공적이 뛰어난 예술인을 대상으로 1990년부터 수여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총 167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편 제27회 예술상 시상식은 오는 28일 오후 4시, 전북여성실자리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김영재 기자

동이육선, 내일 오프라인 특별 경매

도내에서 미술품 경매(고미술, 근현대미술품)를 전문으로 하는 동이육선이 17일 제39회 오프라인 특별 경매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2016년 한해를 마무리 하며 어려운 이웃들과 연말연시의 따뜻한 나눔을 나누고자 마련된 것으로, 동이육선은 매년 연탄나눔 기부금 마련 자선 경매 이벤트로 전주 지역사회에 훈훈한 나눔을 실천해 오고 있다.

이날 특별경매 중 자선경매 수익금 전액은 낙찰자 이름으로 연탄나눔을 위한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에 전액 기부된다.

동이육선 관계자는 "경제 침체로 어렵게 생활하시는 소외된 이웃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할 수 있도록 미술품을 아끼고 수집하는 컬렉터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063)232-8886. /정해은 기자

진정한 친구란, 상대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지음'은 중국 춘추시대 거문고의 명수 백아와 그의 친구 종지기의 고사에서 유래한다. 백아가 거문고를 탈 때 어떤 연주를 해도 친구인 종지가 백아 연주곡의 의미를 알고 이해했다고 해서 만들어진 고사성어로, 눈빛만 봐도 상대 마음을 알아주는 진정한 친구를 뜻한다.

▶ 국립무형유산원, 송년공연
친구, 오래 사귄 벗

내일 유산원 대공연장서
판소리·피아노·무용 등
동서양 퓨전음악 선보여



대통령상 수상작)가 올라 한 해 동안의 행복했던 기억을 되돌아보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는 송년 공연을 연다.

두 번째 달은 '세계 각국의 민속음악을 친근한 방식으로 재해석하여 연주하는 밴드'로 국악에 다양한 분야의 서양음악을 결합하여 새로운 음악을 시도, 민속음악 대중화에 지평을 열었다는 평

가를 받고 있다. 이영훈(기타)·최진경(키보드)을 중심으로 밴드가 처음 결성되었는데, 이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30년간 맺어온 진정한 지음으로 눈만 마주쳐도 뜻이 통하는 즐거운 밴드다.

이어지는 무대의 조주선(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이수자)과 진보라(피아니스트)의 조합은 진보라가 진행하는 방송에 조주선이 출연하면서 인연이 되었고, 음악에 대한 관심과 뜻이 맞아 동양과 서양음악을 결합한 작업이 시작되었다.

또 농악에서 파생되어 현대에 이르러 발달한 자유롭고 다양한 개인놀이 가운데 '체상소고춤'의 맛을 제대로 낸다고 평가받는 김운태와 그가 '춤'에 가쁜 만남을 지음 '진유림' (국가무형문화재 제97호·27호 살풀이춤·승무 이수자)이 꾸미는 공연도 만날 수 있다.

반평생 넘게 친구로 마을 공동체 문화가 이끌어온 전주지정놀이도 관객들을 맞이한다. 농사일을 마치는 철월 백중주간에 솔밭을 열어 농군들을 위로했는데, 여기에는 여러 마을을 초청하여 합동으로 대동축제를 벌였고, 이것이 전주지정놀이로 발전했다.

**공연은 전석 무료관람.
**문의 (063)280-1500. /정해은 기자

완주소년소녀합창단 첫 정기연주회

완주군 거주 초·중학생들로 구성된 완주소년소녀합창단이 첫 번째 정기연주회를 연다.

완주소년소녀합창단(단장 이준호)은 오는 17일 오후 7시30분 완주문화회관에서 제1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

합창단은 이날 40여 단원들이 그동안 호흡을 맞추며 갈고 닦아온 실력을 선보여 국내외 음악 10여곡을 연주한다.

'Why we sing(Greg Gilpin 곡)', '친구와 함께(체코민요)' 등으로 아름다운 하모니를 선보일 예정이다. /완주=이준복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 공연 & 전시 ◀◀

윤철규 개인전 '1월에서 1월로' 도립미술관서

윤철규 작가의 작품에는 짙푸른 하늘에 점점이 박힌 별들이 유독 많이 등장한다.

이로 인해 그의 그림에는 문학 작품 같은 서정성이 배어 나며 삶의 뒤안길을 돌아보는 심정이 발한다.

윤 작가의 개인전 '1월에서 1월로'가 19일까지 전북도립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다.

작가는 '별이 우수수 쏟아지는 그 경이로운 풍경에 우리는 모든 고민을 뒤로 하고 행복한 꿈을 꾸고자 한다. 그것은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별 한 점 한 점 저마다 사연을 담고 있지만, 지나 않음까 하는 생각으로 별을 헤아리며, 어쩌면 세상의 끝에서 잊히고 사라져버린 것들을 만나기 위해 그렇게 밤하늘을 떠도는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심정으로 화면 가득히 별을 채운다'고 말한다.

작가는 원광대학교에서 서양화를 전공하였으며, 이번 전시는 작가의 12번째 개인전이다. 다양한 초대·기획·단체전 등에서 왕성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미술협회·쟁이회·햇살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정해은 기자



따별로 풀어보는 오늘의 운세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 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lsilab.com/

<2016년 12월 16일>

▶쥐띠
48년생: 금전운이 돌아오고 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운이니 적극 활동하라.
60년생: 인덕이 따르는 날이다.
72년생: 동기반으로 인해 좋은 일이 생긴다.
84년생: 처음에는 힘든 운이니 후반에는 잘 풀린다.

▶소띠
49년생: 너무 크게 움직이거나 큰 것을 얻려고 하면 오히려 운이 막히니 주의하라.
61년생: 구설수 시비수가 따르는 운이다.
73년생: 금전적으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운이다.
85년생: 뒷사람의 도움이 따르는 운이니 손을 내밀어라.

▶호랑이띠
50년생: 사고수가 따르니 위험은 삼가는 것이 좋겠다.
62년생: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불화가 예상되니 주의하라.
74년생: 인덕은 버려지지 않고 혼자서 해결해야 할 것이다.
86년생: 친구나 동기반과 뜻이 맞지 않으니 함께 일을 도모하지 말고 때를 기다려라.

▶토끼띠
51년생: 사소한 실수가 타인에게 큰 피해가 되니 조심하라.
63년생: 금전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과 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대비하라.
75년생: 뜻하지 않은 일로 구설수에 휘말리게 되니 조심하라.
87년생: 금전적인 손실이 따르는 운이다.

▶용띠
52년생: 잠시 놀랄만 할 일이 발생하니 중요하지 말고 마음을 안정시켜 침착한 상태를 유지하라
64년생: 도와주는 사람들이 도처에 있다.
76년생: 가까워수록 고마움을 표현하라.
88년생: 외부적인 일에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운이다.

▶뱀띠
53년생: 때로는 과묵하면서 조용한 한마디가 더 효과적일 때가 있다.
65년생: 구설수와 시비수가 따르는 날이다.
77년생: 이성과 불화가 생기는 운이다. 기혼자는 부부불화에 주의하라.
89년생: 편법은 통하지 않으니 정도를 지키며 점진적으로 나아가라.

▶말띠
54년생: 좋은일 하고 뱀 맞는 격이니, 나서지 말고 뒤로 물러서라.
66년생: 어려움이 있어도 도와줄 사람이 생기니 걱정마라.
78년생: 금전운이 좋아이니 적극적으로 움직여라.
90년생: 식욕이 따르니 모임을 하거나 식사약속을 하기에 좋은 운이다.

▶양띠
55년생: 구설수가 따르는 운이다. 대립하지 말고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67년생: 생각하지 못했던 지출이 생기는 운이다.
79년생: 뒷사람의 도움이 따르는 운이니 매사 적극적으로 진행하라.
91년생: 하고자 하는일에 난관이 생기는 운이다.

▶원숭이띠
56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막힘이 따르니 무리한 추진은 삼가고 때를 기다려라.
68년생: 비뻥기만 하고 비뻥만큼의 이득은 얻기 어렵다.
80년생: 처음에는 어긋나나 후반에는 같은 마음이 된다.
92년생: 사소한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운이니 조심하라.

▶닭띠
57년생: 모임이나 술자리에서 조심해야 하는 운. 실언으로 망신당할 일이 생긴다.
69년생: 뒷사람의 덕이 충만하다.
81년생: 여성은 남성의 조력을 쉽게 얻을 수 있는 운이다.
93년생: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포기하지 마라.

▶개띠
46년생: 크게 움직이면 금전 손실만 많이 따른다.
58년생: 먼저 손해를 보면 후에 이득을 보게 되고, 먼저 얻으면 후에 잃게 된다.
70년생: 과도한 의욕을 앞세워 독단행하면 일을 그르칠 수 있다.
82년생: 주변 사람으로 인해 마음상할 만한 일이 발생하니 주의하라.

▶돼지띠
47년생: 지금의 상황에서 가장 현명한 대처는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59년생: 운서에 길성이 따른다.
71년생: 서운한 감정이 든다고 해도 겉으로 표현하지 말아야 하는 때다.
83년생: 작은것에 욕심 부리다 큰것을 잃을 수 있으니 주의하라.